

보도시점 2026. 8. 5.(수) 16:30 (2026. 8. 6.(목) 조간)

“‘야, 너’ 대신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개최

- 노동부·노동권익재단 공동 개최, 노동존중 문화 전국 확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수), 충남 아산시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 충청남도과 함께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했다.

*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주완),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이창곤), 전태일재단(이사장 박승흡)

이번 행사에는 충남·대전 지역 기업 관계자와 이주노동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전달했다.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에는 이주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일터의 소중한 동료로 존중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4개 노동권익재단이 지난 4월 체결한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야”, “너” 등의 호칭 대신, 이주노동자의 이름(00님, 00씨)을 부르는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동료로 존중하는 일터를 조성하는 것이 캠페인의 목적이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권익재단은 지난 4월 울산을 시작으로, 5월 광주, 6월 경북 예천 등 전국 각지에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노동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 충남 지역 노동자·사용자 단체는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을 위한 공동선언도 발표하였다. 공동선언문에는 이주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하고,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고, 이를 일상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천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노동자단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남세종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세종지역본부, 충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사용자단체)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중소기업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를 이름으로 부르는 작은 실천이 더 나은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행사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한은숙 (044-202-7157)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진아 (044-202-7152) 박성진 (044-202-7150)



붙임 1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행사 개요

□ (주최) 4개 노동권익재단*,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 (일시) '26. 8. 5(수), 16:30~17:20

□ (장소) 아우름 충남공동체플랫폼 중회의실 (2층)

□ (참석) 고용노동부 장관, 충청남도지사,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노동권익재단 관계자, 지역 사업주, 이주노동자 등 150여명

□ (주요내용)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 업무협약」 협력 사업 진행

○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전달하며 노동 존중 문화 확산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6:30~16:31 ('1)	• 개 회	사회자
16:31~16:35 ('4)	• 묵념 및 내빈소개	
16:35~16:41 ('6)	• 대형 안전모 서명	주요 내빈 (장관, 도지사, 이사장 등)
16:41~16:45 ('4)	• 개회사 (우분투재단→ 내 일의 내일)	우분투재단 이사장, 내 일의 내일 이사장
16:45~16:54 ('9)	• 인사말씀 (장관 → 도지사 → 이사장)	고용노동부 장관, 충청남도 도지사,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6:54~17:07 ('13)	• 안전모 전달	
17:07~17:12 ('5)	• 단체 사진	주요 내빈
17:12~17:17 ('5)	• 선언서 서명	지역 사용자단체 대표 지역 노동자단체 대표
17:17~17:19 ('2)	• 이주노동자 발언	
17:19~17:20 ('1)	• 폐 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오늘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 도지사님,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현장 곳곳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이주노동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님과 내 일의 내일 이사장님,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전태일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업과 지역사회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쉽 없이 돌아가는 공장과 건설현장부터,
농어촌의 들녘과 바다까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흘린 이주노동자 여러분의 땀은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인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구성원이자 동료입니다.

그러나 일부 일터에서는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이름 대신

‘야’, ‘너’ 와 같은 호칭으로 부르거나,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등한 동료로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단순히 호칭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동자로서 존엄을 존중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오늘 이주노동자 여러분께 전달하는 안전모에는

각자의 소중한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일터의 동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담은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고,
또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적은 달라도 땀의 가치는 같습니다.

오늘의 캠페인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전국의 산업현장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도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